

이름 김미래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미국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1.8.23 ~ 2012.05.14
귀국여부	아니오 (2012.7.12)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i>Principles of Macroeconomics</i></p> <p><i>Elementary French</i></p> <p><i>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i></p> <p><i>Developmental English</i></p> <p>영어로 글을 쓰는 과목입니다. A4 2장 분량의 글을 5번 제출해야 했고, 매주 5개씩의 단어시험이 있었습니다. 영작 실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i>Lifetime & Individual Sports</i></p> <p>볼링수업입니다. 친구들과 볼링 치며 final 한번 보고 나머지 수업은 계속 볼링 칩니다. 따로 extra fee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수업이랑 굉장히 싸게 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i>Principles of Microeconomics</i></p> <p><i>Public Speaking</i></p> <p>3번의 발표를 해야 하고 3번의 시험이 있습니다.</p> <p>Terri Jagers 교수님의 수업을 꼭 추천합니다!!</p> <p><i>Drawing I</i></p> <p>Art Major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으나, 주어진 시간 안에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A 받기는 어렵습니다.</p> <p>하지만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평도 해주어야 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많았습니다.</p> <p><i>Elementary French</i></p> <p>레벨이 올라가면서, 내용도 어려워지고 5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매 시험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어도 외우고, 프랑스어도 외어야 했고, 문법설명을 영어로 설명을 듣고, 프랑스어로 적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비추합니다.</p>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Record Fee 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대략\$ 24 정도,,, Insurance 약 800\$ 볼링수업 extra fee: 70\$
------------------	---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외부 아파트(arbors of samhouston)
숙소비용	6개월: 325\$/month, 5개월: 360\$/month
숙소평가	학교와 가까운 점은 좋으나 HEB (grocery store)가 조금 멀고, 가격대 비 만족.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직접 요리 (✓)
식사비용	한끼에, 4\$~ 6\$ 사이(점심만), 아침, 저녁은 직접요리
식사평가	처음엔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다.
보험	Sam Houston university 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따로 샀습니다. 제 기억으로,, 800\$정도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달 생활비(대략)	숙소 및 식사 비용을 제외한다면 거의 지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비용(렌트비, 관리비= 약 400\$정도) 식사비용 (한 달에, 300\$~400\$ 정도) - (본인이 얼마만큼 사먹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고 안 해 먹는지에 따라 달라 질 것 같습니다. 처음 한 달은 식비로 100\$정도도 안 썼던 것 같으나, 점점 사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식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 Huntsville 에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모두 자가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라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더운 여름에는 HEB 같은 곳을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차있는 친구들을 잘 찾아서 사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스킨스쿠버라던가, 볼링 같은 경우는 수업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를 이용하여 학교 외부의 수영장, 또는 볼링장으로 직접 매 수업 가야 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는 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점 유의하고 수강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 내에서 밥을 사먹고, 영수증을 보시면, old main market 20% 할인이 됩니다. 영수증 이용해서 meal plan을 사지 않으신 분들은 가끔 이용하면 저렴하게 old main market 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 전공관련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Used book 을 사시거나 책을 rent 하길 추천합니다. 어차피 책을 사도, 되팔 때 반값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국까지 가지고 가자니, 짐만 무거워져서, 저는 100\$넘게 산 책을 18\$에 팔았습니다. 학교 내 서점에서 책을 되팔 경우, 최대한 빨리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의 수량이 서점 쪽에서 다 차면 점점 가격이 내려가서, 저처럼 절반 가격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파트는 장기 계약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6개월 할 것인지, 10개월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어느덧, 10개월이라는 교환학생 파견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쓰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합격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이런저런 서류들을 준비하던 때가 엇그제처럼 느껴지지만, 벌써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날이 다가 오고 있다는 것에 정말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수업 긴장한 상태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혼자 잘못 알아들어서 과제를 잘못 해간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험들과 과제를 무사히 마쳤을 때, 그 성취감은 그 동안의 고생들과 창피함을 잊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을학기과 봄학기 새로운 교수님보다 같은 교수님께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학기가 지나고, 교수님들과 헤어질 때 그 동안 쪽 봐오던 교수님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뻔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조그맣고 유용한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Public Speaking 수업에서 만난 Terri Jagers 교수님과의 추억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걱정이 되었고, 매 수업 진행되는 토론 때문에 수업 전날부터 긴장이 되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잘 모르는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저를 봐주신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제 것을 보시고, 마침표 하나 잘못되어도 다시 해오라고 하셨을 때도 있어서 몇 번이고 교수 실에 들락날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 국제학생들은 항상 캠퍼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레저활동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뭐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만 하라고 말씀해주셔서 왜인지 모르게 엄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를 가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이 교수님의 수업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까지 참 배울 점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환학생을 가는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영어 이기도 하지만 영어능력의 향상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작게는 혼자 매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것부터 각종 렌트비와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들까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는 떠나기 전부터 생활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가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부터, 뭔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등등,,, 하지만, 무엇 하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 없었고, 잘못되었다고 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걱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으로 순천향대 학생들만 파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을 만날 것 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어 순천향 이라는 이름 또한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od luck ☺